

생산자물가 상승률 환란 이후 최고

유가 고공행진 ... 6월 총지수 10.5% 급등

비료·석유제품·보조사료 등이 상승 주도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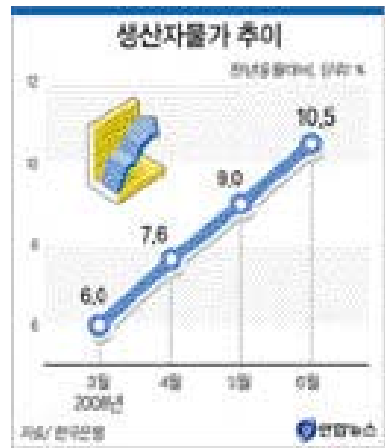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총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5% 올랐다. 이는 98년 11월의 10.9% 이후 가장 높다. 총지수의 상승률은 3월 6.0%, 4월 7.6%, 5월 9.0% 등에 이어 6월에는 10%를 넘었다.

윤재훈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통계 기준연도가 6월부터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바뀌면서 상승률 수치가 조정됐다"면서 "중점의 기준으로 하면

6월 생산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12.5%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1.6%로 지난 4월의 2.1%, 5월의 1.9%에 비해 둔화했다.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을 보면, 공산품이 15.2%를 나타내 98년 7월의 15.8% 이후 가장 높았다. 전력·수도·가스는 4.4%, 서비스는 2.3% 등에 이어 6월에는 10%를 넘었다.

농림수산물 등은 기온 상승에 따른 출하 증가로 1.2% 떨어졌다. 품목별 전월대비 상승률을 보면, 화학



제품에서 복합비료가 69.9%, 요소비료가 66.9%의 폭등세를 각각 나타냈다. 생선·산어물 가격이 조정되는 등 하반기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 톨루엔 15.9%, 테레프탈산 10.9%, 파라크실렌 10.8%, 에틸렌 10.0%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제품에서는 엔진

오일 22.6%, 제트유 19.8%, 부탄가스 8.7%, 등유 7.2% 등의 오름폭을 나타냈고 음식료품과 담배에서는 보조사료 20.1%, 밀가루 5.9%, 비스킷 4.4% 등의 상승세를 보였다.

1차 금속제품에서는 형강이 10.9% 올랐고 강관절단품 8.8%, 일반철근 8.5%, 고장력철근 8.4%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운수에서는 특수화물운임이 6.3% 올랐고 일반 개인화물운임은 2.7% 상승했다.

농림수산물에서는 넘치기 73.2%나 뛰었고 조개 58.5%, 고등어 23.1%, 물오징어 18.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에 조기는 87.3% 폭락했고 계 46.5%, 가자미 40.5%, 갈치 18.1%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감자는 49.9%, 토마토는 26.5%, 마늘은 20.0%의 비율로 각각 내렸다. /연합뉴스

증시 반등 무산

이란 미사일 소식에 14P 떨어져

코스피지수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와 원화 강세 여파로 반등이 무산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 갱신했다.

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4.09포인트(0.92%) 내린 1,519.38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1,533.47로 마감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지수는 이날 반등 시도마저 무산돼 이틀째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나뭇과 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6.37포인트(1.23%) 오른 522.2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외국인 순매수는 1천707억 원어치를 팔아 23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의 순매도 기간은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4거래일 연속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전날 국제유가의 급락과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이날 오전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강하게 상승하던 코스피지수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외신이 전하자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환율 1,000원대

27.80원 ↓ ... 하락폭 9년9개월來 최대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대규모 달러화 매도개입 여파로 두 달 만에 1,000원대로 복귀했다. 이날 하락폭은 9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거래량도 전날보다 배증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7.80원 떨어진 1,004.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5월 2일 이후 두 달만에 처음으로 1,000원 선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대비 하락폭은 1998년 10월 9일 28.00원 이후 9년9개월만에 최대치다.

이날 환율은 6.20원 떨어진 1,026.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024.50원으로 밀린 뒤 저가인 식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29.50원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당국의 불시 개입으로 990원 선으로 하락한 뒤 치열한 공방을 거쳐 1,004원 선으로 마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외환당국의 공격적인 달러화 매도 여파로 환율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소, 빛에 '허덕'

원자재가 상승 연체율 0.14%p 올라

건설경기 부진 건설사 연체율도 급증

유가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은행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79%로 작년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로 0.03%포인트 떨어진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로 0.10%포인트 올라갔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0.07%포인트 하락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4%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계절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1.

32%로 높아졌다.

신용도가 높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고유가 등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대출의 5월 말 현재 업종별 연체율을 보면 건설업은 2.26%로 작년 말보다 0.80%포인트 상승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2.19%로 0.77% 높아졌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 숙박·음식점업은 소비 부진과 원재료상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대출금 상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또 도소매업은 1.47%로 0.53%포인트, 부동산업은 1.30%로 0.35%포인트, 제조업은 1.43%로 0.48%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원더걸스 MP3

홈플러스와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가 설립한 이노GDN은 오는 10일부터 한달 간 전국 68개 전 매장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최초로 이노디자인의 패션 MP3 플레이어 신모델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MP3는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 대표와 맨스쿨 원더걸스 등이 디자인했다. /연합뉴스

금리상한 주택대출 '찬밥'

수수료 비싸 고객들 외면

출시 2주 지나도 판매실적 10여건 불과

시중은행들이 아침 차게 내놓은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옵션 계약을 하면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는 최초 약정금리 이상 오르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반동 금리형 대출상품의 금리 기준이 되는 3개월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한동안 더디게 움직인 반면 옵션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비싸 고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CD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이를 감안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채태국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당시 적용된 CD 금리가 상한선으로 설정되는 국민은행의 'KB유비무한 모기지론'은 출시된 지 2주가 지나지만 판매 실적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선보인 우리은행의 '금리안심파워론'의 판매 실적도 56건으로 초라한 편이다. 이 상품은 0%포인트, 0.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등 4개의 금리 상한 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대출 이후 CD 금리의 상승 폭이 이 기준을 넘는다 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마찬가지다.

이들 상품에 대한 호응이 낮은 것은 한동안 CD 금리가 회복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혜택은 당장 누릴 수 없는 반면 비싼 수수료는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금리 상한 대출상품은 3년 옵션 계약(분할 상환 기준) 체결 수수료가 8월 현재 0.81%이다. 이날 기준으로 대출받을 경우 반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연 6.14~7.64%이지만, 3년 기준 금리 상한 상품의 대출 이자는 여기에 0.81%포인트를 더해 연 6.95~8.45%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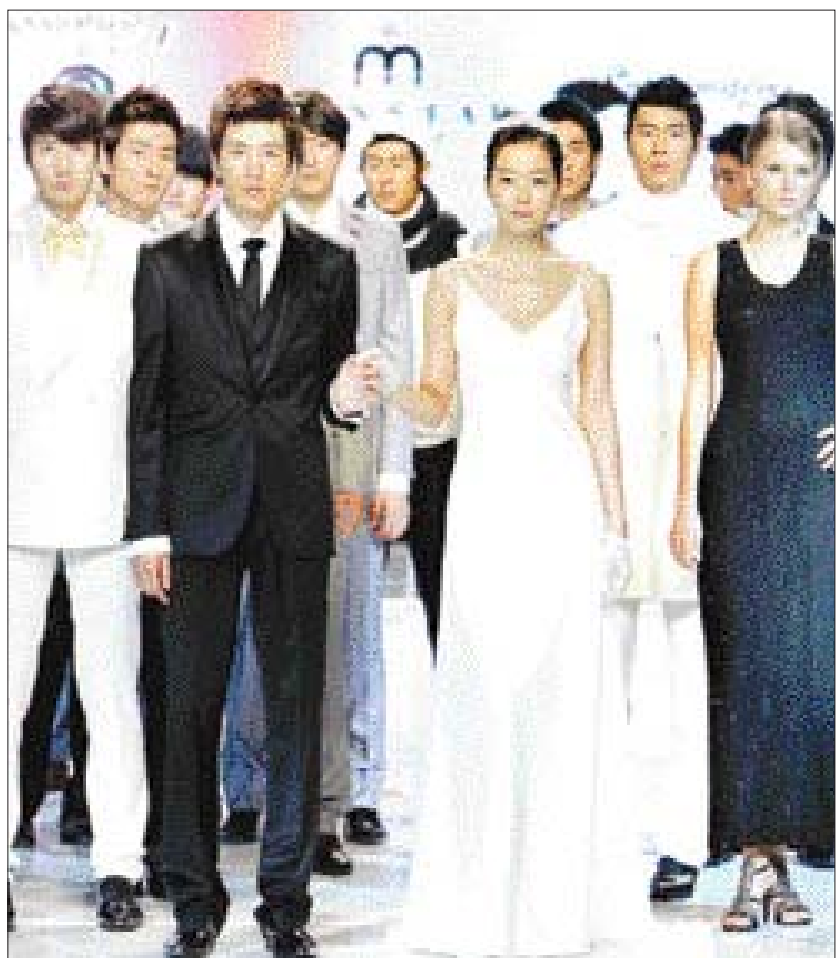
중소 구매자금 2조4천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대표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2조4천억 원 규모의 원자재 구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정책자금에서 원자재 구입자금을 1천200억원 추가로 조

성하고 시중은행도 자체적으로 2조3천억 원을 조성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사업성 평가와 민간은행의 재무평가가 결합한 협조융자제도에 은행권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벌써 가을옷 패션쇼

9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08 코오롱 옴 패셔쇼'에서 모델들이 올 가을, 겨울 유행할 다양한 종류의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그룹 하반기 4만명 추가 채용

작년보다 23% ↑ ... 투자규모도 55조원으로 늘려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국내 30대 그룹은 올해 당초 계획한 7만 8천명보다 3.9% 늘린 8만1천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회장단회의를 가진 뒤 발표문을 통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재계가 앞장설 것"이라며 하반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 회장단은 발표문에서 30대 그룹은 올해 상반기 39조3천억원의 투자 집행실적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투자규모를 15.9% 늘렸고, 하반기에는 55조2천억원의 투자 집행이 예상돼 올해 연간 투자집행 규모는 94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계가 당초 계획한 연간 투자규모 94조9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투자실적 75조5천억원에 비해 25.2% 증가한 수치다.

회장단은 이날 초 개최된 지역투자 박람회에서도 협약된 10조1천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실적은 4만2천명이며, 하반기에

는 3만9천명의 추가 채용이 예상돼 연간 신규채용 규모는 8만1천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채용규모는 지난해 채용 실적 6만6천명에 비해 22.9% 늘어난 수준이며, 당초 계획한 금년도 채용 규모 7만8천명보다 3.9% 증가한 것이다.

회장단은 또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을 10% 향상시키고, 원가를 10% 절감하자는 내용의 '10/10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제조원가 인상 요인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중 돈 넘쳐 ... 물가 불안 가중

5월 통화량 증가율 15%대 급등



지난 5월의 통화량 증가율이 15%대로 올라서는 등 시중에 풀린 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6월에는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해외부분으로 통화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가세가 5월보다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 평잔기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8%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지난 1999년 6월의 16.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M2 증가율은 올들어 1월 12.5%, 2월 13.4%, 3월 13.9%, 4월 14.9%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도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13.1%를 기록했다.

이처럼 시중의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이유는 기업 및 가계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 증권에 돈이 계속 몰린 탓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동부회계 광주 고객센터	[주5일/6월오전] 동부회계 직원 TC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220-8500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웹디자인/웹프로그래밍/응용프로그램]2008 하반기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224-8564
창익텍	인테리어디자인, auto cad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12	062-520-6031
㈜빅마켓	주방마트 정규직(매장관리,캘러리,인더넷쇼핑몰)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7/12	062-650-2203
하미시네마	기본 사무, 인력(CREW)관리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267-7777
프리머스에이치알	우산동 SK 텔레콤 114상담원 채용중-7/14일 서류마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14	062-383-1756
조선 메디칼	경리 및 사무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653-0351
에이스침대	(주)에이스침대 대리점 판매 지원 업무(판매경력자)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7/14	062-512-7867
대창	사무/총무업무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5	063-533-0742
신인중공업	조선생산설계 경력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16	062-717-5523
㈜호원	부품개발,생산기술원,생산직,영어능통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16	070-7547-8304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각 분야별 인력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1-336-1600
주노커피코리아	케나에스프레소 구식정착 파트타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573-0410

(광주직접콜리 512-6210 제공)